

KIA행 선택은 '최고' PO 못 갔을땐 '실망'

위더마이어 수석코치의 '시즌 키워드'

"최고의 시즌이었다"며 웃은 위더마이어 수석 코치는 "동시에 실망스러운 해였다"고 KIA 타이거즈에서의 첫 시즌을 돌아봤다.

뉴욕 양키스 출신인 위더마이어(64) 수석코치는 맷 윌리엄스 감독과 올 시즌 KIA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모든 게 좋았던 광주에서의 생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은 위더마이어 수석코치에게 '최고'였다. 하지만 목표했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루지 못한 부분은 '실망'으로 남았다.

"목표했던 포스트 시즌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한 그는 부상과 마운드를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부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류지혁, 이창진, 김선빈 등이 부상으로 빠졌다"며 "애런 브룩스도 안타까운 일로 귀국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마운드가 중요하다. 시즌 시작할 때 2위였던 투수진이 막판에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며 "쉬운 경기가 없었다. 매일 집전을 펼치면서 어려운 경기들을 했다"고 말했다.

KIA는 올 시즌에도 중부상에 고전했다. 특히 내야진에서는 김선빈이 세 차례 재활군이 되면서 85경기 출장에 그쳤고, 새 바람을 불어넣은 '이적생' 류지혁은 5경기 만에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졌다. 허리 통증으로 뒤늦게 2020시즌을 시작한 이창진도 22경기 활약 뒤 이탈했다. 모두 햄스트링이 문제였다.

브룩스의 이탈 속 지난해 막강 전력으로 꼽혔던 '박하전문'도 부상과 트레이드로 해체되면서 마운드 운영도 쉽지 않았다. 결국, 올 시즌 KIA 투수진의 평균자책점은 5.13, 전체 8위였다.

올 시즌 실패 원인을 살펴본 윌리엄스 감독과

KBO 리그 도전·광주 생활 만족을 실패 원인, 부상·투수진 부진 마무리 훈련, 기본기에 집중

"젊은 선수들 능력 있어 희망적 야구인으로 사는 삶 행복"

다음달부터 선수들 훈련 지휘

위더마이어 코치는 '건강한 몸'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앞선 마무리캠프도 예년과 달리 기술훈련을 빼고 체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우리는 더 좋아질 것이다.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고 당장 우승은 어렵지만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다"며 우선 조건으로 '건강'을 이야기했다.

그는 "올해 다쳤던 선수들은 물론 모든 선수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선수들이 수시로 커피를 마시는데 근육에 좋지 않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건강을 위해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다"며 "투수들도 체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희망적인 부분들은 많다. 좋은 자원들도 많다. 예를 들어 김규성은 수비가 뛰어나지만, 아직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있다. 쉬운 길은 없다. 꾸준히 해야 한다. 빅리거들도 매일 피고받고 즐기면서 훈련을 한다"며 "투수들도 젊고 희망이 있다. 새로운 코치

와 체력, 스트라이크 던지는 부분 등을 신경 쓰면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다. 나는 재미있게 감사해 하며 야구일을 하고 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로 스트레스받고 힘들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4명의 아이가 있는 가장이 해고를 당했을 때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며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 경기하는 것을 즐겨야 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년 가까이 그라운드에서 생활을 해온 그는 여전히 그라운드가 좋고 소중하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유니폼 입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우리 야구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40년 동안 야구를 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하고 싶다(웃음)"며 "빅리그에서부터 많은 선수를 보았다. 많은 이들이 '만약 이랬다면'이라는 말로 핑계를 대고 후회를 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 알아준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1월 4일부터는 한평 챔피언십에서 신인선수, 군 제대 선수들의 훈련을 지휘할 계획이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머무를 생각이다. 아내가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아내도 4마리의 개를 돌보느라 바쁘다(웃음)"며 "내년 시즌 기대가 많이 된다. 한평에서 빨리 선수들을 만나고 싶다.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2세 음바페, 벌써 PSG 100호골

팀 역대 5번째...개인 통산 131골 차세대 발롱도르 후보 부상

'축구 신성' 킬리안 음바페가 스물두 살의 나이에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100호 골 금자탑을 쌓았다.

음바페는 6일 프랑스 몽펠리에의 라 모송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시즌 리그1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 골을 넣어 PSG의 3-1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이로써 음바페는 PSG 입단 뒤 불과 네 시즌도 채우지 않고 이 팀에서 공식전 100골을 채웠다.

PSG에서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에디슨 카바니(200골·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156골·AC밀란), 파울레타(109골), 도미니코 로세토(100골)와 음바페 등 5명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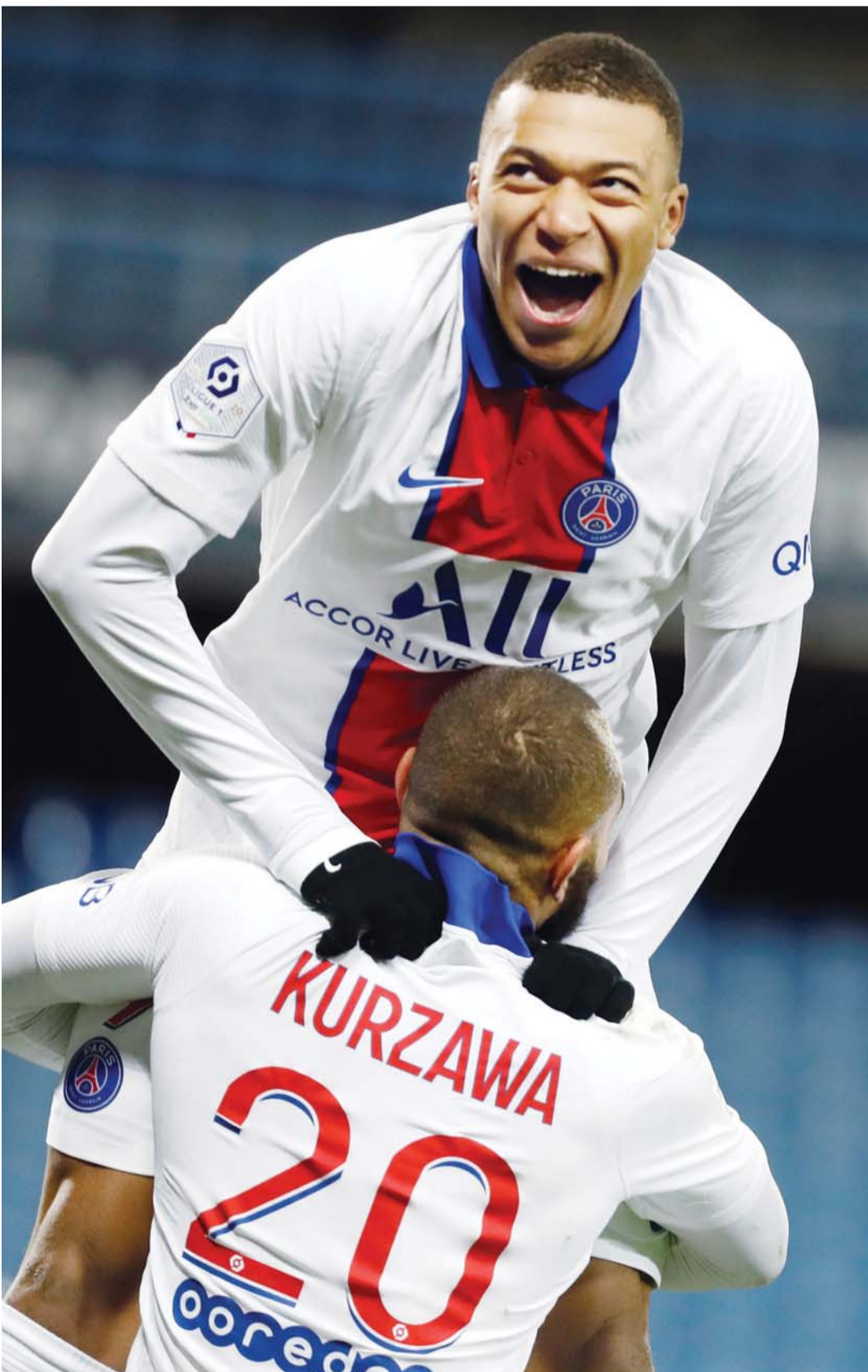
2017-2018시즌 AS 모나코에서 PSG로 임대 이적했으며 지난 시즌까지 세 시즌 동안 공식전에서 90골을 넣었다. 여기에 올 시즌 이날 경기까지 정규리그에서만 10골을 더 넣어 대기록을 완성했다. 프로 데뷔 팀인 모나코 시절 득점까지 더하면 음

바페는 통산 131골을 기록 중이다.

그는 이미 지난해 스물한 살의 나이에 프로 통산 100호 골을 넣어 축구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축구계를 지배하다시피 해온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음바페는 열릴 예정인(20·도르트문트) 등과 함께 차세대 발롱도르 후보로 꼽힌다.

한편, 몽펠리에 소속 한국인 공격수 윤일록은 올 시즌 처음 선발 출전해 후반 18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 기본 최고" 킬리안 음바페가 6일 프랑스 몽펠리에 라 모송 경기장에서 열린 리그1 경기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골을 넣은 뒤 동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골프연맹 회장 오른 '전설' 소렌스탐

'여자골프의 전설'로 불리는 안나소렌스탐(50·스웨덴)이 국제골프연맹(IGF) 새 회장에 선임됐다.

IGF는 최근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를 열고 소렌스탐을 2021년 1월 1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새 회장에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회장은 피터 도슨(72·스코틀랜드)으로 2010년부터 10년간 IGF를 이끌며 골프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힘을 썼다.

소렌스탐 역시 2016년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복귀할 당시 홍보대사를 맡았었다.

소렌스탐은 "10년간 IGF를 이끌어준 도슨 회장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의 뒤를 잇게 돼 영광이며 골프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이 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물론 여러 골프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이 창설된 2006년 '초대 세계 1위'에 올라 2007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세계 1위를 지켰고 2008년에 은퇴했다.

소렌스탐은 "10년간 IGF를 이끌어준 도슨 회장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의 뒤를 잇게 돼 영광이며 골프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이 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물론 여러 골프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용기내면 당신도 스포츠 기자"

대한축구협 인턴기자·인턴 VJ 모집

했다.

IGF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스올림픽 등에서 골프 경기를 주관하고 있으며 세계 아마추어 팀 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한다.

2008년 올림픽 골프위원회 가입을 승인받아 골

프가 2014년 유스 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등에서 개최되는 데 앞장섰다.

미국골프협회(USGA), R&A,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유러피언투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국프로골프협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146개국 골프협회 회원국으로 가입되었고 대한골프협회도 1968년 IGF 회원이 됐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2021년 인턴기자'와 인턴 VJ'를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취재기자 3명과 VJ 2명으로 2021시즌 중종고리그룹 중심으로 각종 대회를 취재하게 된다. 이들은 KFA 홈페이지 기자, PD와 함께 일하며 기사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된다. 주말 경기를 중심으로 취재하며 월 1회 정기 기획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교통비, 식비 등 취재 실비를 제외하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활동비가 지급된다. A매치와 FA컵 등 특별한 취재 기회도 받는다. 지방 출장이 가능한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취재기자의 경우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 모두 가능해야 한다. 영상 VJ는 촬영과 편집이 가능해야 한다. 해당 부문에 대한 경력이나 포트폴리오가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자유 양식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포트폴리오(선택제출) 등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이메일(인턴 기자는 mc.oh@kfa.or.kr·인턴 VJ는 doosan.tak@kf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 VJ 지원자는 본인이 제작한 영상제작물도 제출해야 한다. 1차 합격자는 31일 발표된다. 이어 1월 1일 면접·관련 업무 테스트 뒤 1월 18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